

베체트병 환자에서 발생한 심근염 1예

경북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

*김나리, 은정수, 강종완, 김지훈, 양동현, 배기범, 임철현, 남언정, 강영모

서론: 베체트병은 만성적이며 재발하는 전신 염증성 질환으로 피부 점막 조직 증상이 대표적이며 전신 장기에 다양한 크기의 혈관을 침범하는 혈관염 소견을 보인다. 베체트병 환자의 7~46% 에서 심혈관 침범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. 이 중 가장 빈도가 높은 것은 심장막 침범 및 관상 동맥 이상이다. 저자들은 베체트병으로 인한 대동맥류, 상대정맥 혈전증, 대동맥염이 있었던 환자에서 심근염 1예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. **증례:** 47 세 남자 환자로 3 일간 지속된 고열로 응급실로 내원하였다. 환자는 31 세에 베체트병 진단 후 38세에 상행 대동맥류 발견되어 상행 대동맥 절제 및 치환술 시행하였다. 이후 상행 대동맥의 가성 동맥류로 인한 상대정맥 증후군이 발생하여 상행 대동맥 패치 폐쇄 및 상대 정맥 혈전 제거술 시행하였고 이후 warfarin 및 aspirin 복용하였다. 44 세에 대동맥염으로 대동맥 및 폐 실질의 소통이 생겨 발생한 객혈로 상행 대동맥의 가성 동맥류 절제 및 폐 췌기 절제술 시행하였고 우측 중간 대뇌 동맥 경색으로 좌측 상지 마비가 발생하였다. 이후 infliximab 및 cyclophosphamide 치료로 질병활성도가 조절되고 있었으나 내원 약 한 달 전부터 불규칙한 투약 및 음주 후 전신 쇠약감 및 고열이 발생하였다. 내원 당시 혈액검사 상 CK-MB 5.2 ng/mL, cTnI 5.2 ng/mL, CRP 8.6 mg/dL이었다. 심전도 상 ST 분절의 상승과 T파의 역전이 있었다. 심초음파에서 심실중격과 우심실벽이 두꺼워져 있으며 운동이 저하되었다. 심장 MRI에서 심실중격에 지연된 조영증강 소견 및 심근의 부종 소견이 보였다. 관상동맥 조영술 시행 후 허혈심장질환 배제되었으며, 심내막 근육 조직검사상 근육세포의 괴사 및 변성을 보이며 림프구와 중성구의 침윤이 심했다. 심근 침범이 가능한 바이러스 혈청검사결과는 모두 음성이었다. 베체트병의 진행에 의한 심장 침범으로 진단하고, 면역글로불린과 함께 cyclophosphamide 및 고용량 경구 스테로이드로 치료하였다. 추적 검사한 심장 MRI에서 심근의 부종이 호전되고 심전도에서 ST 분절이 정상화되었으며 심초음파에서 심실 수축력이 회복되었다.

뇌전이가 있는 비소세포폐암 환자에서의 erlotinib을 사용한 치료의 1예

부산성모병원 내과학 교실

*박종화, 이경우

서론: 비소세포 폐암이 뇌전이 된 경우는 효과적인 치료법이 없어 임상에서 환자를 볼 때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. 저자는 뇌전이가 동반된 비소세포 폐암환자에서 뇌의 병변이 erlotinib에 반응을 보였고, 폐의 병변은 악화후 호전된 증례가 있어, 이를 보고하는 바이다. **증례:** 55세 남자 **주소:** 두통 및 호흡곤란 **현병력:** 상기 환자는 30년간의 흡연자로 내원 2년전 폐의 우중엽과 우하엽을 침범하고, 뇌전이를 동반한 비소세포성 폐암(선암)을 진단받고, erlotinib을 제외한 약제로 수차례 항암치료를 시행하였으나 경과 호전 없어, 본원으로 전원 되었다. **영상소견:** 내원 2년전 뇌 MRI 상 다발성 뇌 전이 소견 보였고(Fig. 1A), 흉부 CT에서는 우중엽의 결절성 폐암 및 양 폐의 혈행성 파종 소견이 보였다(Fig. 1B). **임상경과:** 입원후erlotinib 150mg를 하루 1회 투여하기 시작하였다. 이후 2개월 뒤 환자의 활동능력이 호전되었다. 뇌 MRI (Fig. 2A), 흉부 CT (Fig. 2B) 상, 뇌의 병변은 호전 되었지만, 우폐하 전엽의 새로운 병변의 크기가 증가되었다. 이후에도 erlotinib을 계속 투여하였고, 2개월 뒤 뇌 MRI (Fig. 3A), 흉부 CT (Fig. 3B)를 시행하였고, 뇌의 병변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며, 흉부 CT에서도 병변의 호전을 보였다. 고찰 Popat 등은 뇌전이를 동반한 비소세포 폐암환자에서, erlotinib을 사용하여 뇌전이는 호전되었으나 이외의 병변은 악화된 증례를 보고하였다. 상기의 증례도 그 사례와 유사한 점이 많으나, 폐 병변도 일부 호전 소견을 보였으며, 흡연자, 남성이라는 점이 차이가 있었다. 상기 예를 통해 뇌전이가 있는 비소세포 폐암 환자를 치료함에 있어, 환자의 삶의 질 개선과 뇌전이에 의한 합병증 개선을 위해 Erlotinib을 사용되는 것을 고려 할 수 있겠지만, 유사한 증례 보고가 아직 많이 부족한 상태로, 더 많은 대규모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.

